

민주 넘쳐나는 후보군 교통정리...현직 1명은 평화당 출마

D-54 지방선거 중간 점검

■ 광주 5개 구청장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선출을 위한 컷오프가 이르면 20일 발표되는 등 광주지역 구청장 선거가 본격화한다. 민주당의 고공 저지를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광주지역 구청장 선거는 '민주당 현역 출마자'가 없다는 점에서 ▲무소속 돌풍 여부 ▲민주당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선전 여부 등이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현재로서 민주당 옷을 입고 출마하려는 후보군은 넘쳐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 현역 단체장이 무소속과 민주당평화당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치열한 당 대당 경쟁과 무소속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평화당과 바른미래당도 '호남 정치 1번지' 광주 입성을 노리고 있다.

특히 민주당 후보 경선의 경우 권리당원의 표심 향배가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여 출마자들의 막판 당원 확보 경쟁도 치열하다.

19일 민주당 광주시당은 "애초 이날로 예정됐던 구청장 경선후보자 발표를 일정상 20~21일에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일부 후보의 가점과 감점에 대한 명확한 중앙당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컷오프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민주당 광주시당은 구청장 후보 선정을 위한 후보자 면접은 마쳤고 오는 25~27일 케이블TV 토론회를 연다. 이어 5월 3~4일 권리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5~6일께 구청장 후보를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컷오프를 목전에 두고 일부 지역에서 후보 간 단일화가 진행되고 현역 단체장의

동, 민주 vs 평화 한판승부

서, '무소속 돌풍' 여부 촉각

남, 민주당만 치열한 경쟁

북, 민주 후보 단일화 관심

광산, 본선보다 치열한 경선

탈당 등이 예정돼 각 지역별 정치 쟁점도 복잡해지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번 컷오프를 통해 5명 이하 경합 지역은 2명, 6명 이상 경합 지역은 3명의 경선 후보를 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2~3위 후보 격차가 작은 경우에는 5명 이상 경합 지역에서도 3명의 경선 후보를 뽑는다.

동구청장 선거는 김성환(7)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면서 평화당과 민주당 간의 한 판 승부가 예상된다. 민주당에서는 강신기(59) 전 광주시 기획조정실장, 양해령(55) 전 광주시의원, 임택(54) 전 광주시의원, 강수훈(34)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문화예술분과위원장 이 경합 중이다. 바른미래당에서 최근 김영우(50) 전 광주시의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동구는 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이 맞붙는 가장 뜨거운 선거구가 됐다.

조만간 임우진 구청장이 민주당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점쳐지는 서구청장 선거도 혼전 양상을 띠고 있다. 광주지역 5개 구청장 중 유일한 민주당 소속 구청장인 임우진 서구청장이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번 광주지역 지방선거에서 '현역 단체장의 무소속 돌풍'이 일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민주당에서는 김보현(53)·김영남(51)

전 시의원 김성현(58) 전 문재인대통령 후보중앙선대위 60년민주당계승위 본부장, 김금림(50) 아시아청소년비전문화연구원 원장, 서대석(56) 전 노무현대통령 비서실 비서관이 경쟁 중이다. 평화당에선 이성일(53)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뛰고 있다.

최영호 청장의 시장 불출마에 따라 민주당 공산이 된 남구지역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민주당은 김병내(45) 청와대행정관, 임형진(59) 전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정재수(58) 전 광주도시철도공사 본부장, 최진(58) 전 문재인대통령후보 광주선대위원장 등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무소속 김귀봉(59) 전 광주시 공무원도 출마표를 던졌다.

송광은 구청장의 연임 제한으로 더욱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북구청장 선거는 최근 민주당 내 일부 후보의 단일화가 최대 관심사다. 현재 민주당은 김상훈(52) 전 북구

의회 의장, 문인(59)전 광주시행정부시장, 문상필(51)·조오섭(49) 전 광주시의원이 경쟁하고 있는데 최근 문상필, 조오섭 예비후보가 진행 중인 단일화의 파급력이 가장 큰 변수다. 평화당도 이은방(55) 전 광주시의회 의장이 출마표를 던지고 한 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민행배 구청장의 시장 출마로 공산이 된 광산구청장 선거 구도도 안갯속이다. 민주당은 김영록(51) 광주전남세무사회 회장, 윤남실(52)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장, 윤봉근(60) 전 광주시의회 의장, 김형수(56) 민주당광주시당 부위원장, 장성수(58) 전 광주시 국장, 임한필(47) 문재인대통령후보 공정국가위원회 부위원장, 김삼호(52) 노무현대통령청와대행정관이 경쟁 중이다. 이에 맞서 평화당의 이정현(60) 전 광주시의회 의원도 표밭을 다지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후보 경선 12~13곳으로 확대...22~23일 경선

■ 전남 시·군 단체장

더불어민주당 전남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이 확대됐다. 일부 단수 후보지역에서 탈락 후보들이 반발, 재심을 신청하자 중앙당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단수 후보로 확정했던 장성군수 후보자를 경선으로 선출키로 하는 등 전남 기초단체장 12~13곳을 경선으로 뽑는다. 기초단체장 경선은 오는 22~23일 이틀간 실시한다.

민주당평화당은 19일 3차 후보자 공모를 마감한 뒤 21일 면접을 거쳐 오는 23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단수 후보자와 경선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도 후보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20일 1차 후보를 발표한다.

◇민주당, 경선지역 늘어 12~13곳=민주당 전남도당은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경선을 위한 후보자 등록을 19~20일 이틀간 한다. 시장·군수 경선은 오는 22~23일 이틀간 진행한다. 후보 선출은 일반여론조사 50%와 권리당원 ARS투표 50%를 합산, 다득표자로 결정한다.

19일 현재 경선 지역은 12개 시·군이다. 그러나 영광군수 경선이 20일 확정여부가 결정돼 추가될 수 있다.

맞대결을 펼칠 지역은 4곳이다. 순천시 장 조충훈·허석, 장흥군수 김성·박병동, 강진군수 강진원·이승욱 3곳에다가 최근 재심을 거쳐 경선을 치르게 된 장성군수 김수공·윤시석이다.

여수시장 권세도·김유화·주철현, 나주시장 강인규·이상계·이용범, 담양군수 박

군조·최화삼·최형식, 함평군수 김성모·김성호·박래욱, 구례군수 김순호·이창호·최성현, 해남군수 김석원·윤재갑·이길은, 진도군수 박인환·이동진·주선중 등 7곳은 3파전이다.

무안군수는 이동진 무안군의회 의장의 재심이 받아들여 김산·이동진·정영태·홍금표 등 4명이 경선전을 치르게 됐다.

영광군수는 1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이동진 전 전남도의원의 재심이 인용돼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20일 최고위에서 경선 지역으로 확정되면 김준성 현 군수와 이 전 도의원이 맞대결을 펼친다.

광역의원 경선은 25~26일, 기초의원은 26~27일 각각 경선이 실시된다. 이들 경선은 권리당원 ARS 투표 100%로 결정된다.

◇바른미래당 3곳 후보 신청=바른미래당도 전남 시장·군수 후보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최근 기초단체장 1차 공천 심정을 마감한 결과, 전남에서는 순천시장에 양호석 회계사, 광양시장에 김현우 전 김대중 대통령후보 광양시 선거대책위원장, 담양군수에 강승환 (새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전남 상임대표 등 3명이 응모했다.

이들에 대해 심사를 거쳐 20일 1차 후보자를 확정, 발표한다.

◇민주당평화당 23일 경선지역 발표=19일 3차 공천 공모를 마감한 민주당평화당은 21일 신청자 면접을 한 뒤 23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단수 후보자와 경선지역 및 후보자를 발표한다. 3차 공모에는 21명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당은 앞서 목표시장에 박홍렬 현 시

■ 전남 기초단체장 후보

선거구	민주당	미래당	평화당
목포	보류		박홍렬
여수	권세도·김유화·주철현		
순천	조충훈·허석	양호석	이창용
나주	강인규·이상계·이용범		김대동
광양	김재우	김현우	
담양	박군조·최화삼·최형식	강승환	
장성	김수공·윤시석		
곡성	유근기		
구례	김순호·이창호·최성현	박인환	
고흥	공영민	송귀근	
보성	김철우		
화순	구중근	임호경	
장흥	김성·박병동		
강진	강진원·이승욱	곽영체	
완도	신우철		
해남	김석원·윤재갑·이길은	명현관	
진도	박인환·이동진·주선중		
영암	전동평		
무안	김산·이동진·정영태·홍금표		
영광	김준성		
함평	김성모·김성호·박래욱	이윤행	
신안	보류		

장, 해남군수에 명현관 전 전남도의회 의장, 화순군수에 임호경 전 군수, 함평군수에 이윤행 함평군의회 의장, 고흥군수 후보에 송귀근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강진군수에 곽영체 전 전남도의원, 구례군수에 박인환 전 전남도의회 의장, 순천시장에 이동진 전 순천시의원, 나주시장에 김대동 전 시장 등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곡성군수 후보에 박용득 곡성교육희망연대 대표를 확정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우리도 있어요"...광주 4명·전남 3명 표심 잡기 분주

■ 시·도 교육감

광주시장·전남도지사 선거에 가려져 있지만 다가올 6·13지방선거는 시·도 교육감을 뽑는 선거이기도 하다.

광주시교육감은 광주 교육의 큰 방향을 제시하며 각급 학교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다.

광주시교육청의 1년 예산만 2조원이 넘는다.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장학사·장학관·교사·직원 등 1만명이 넘는 교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교육감에게 부여된 권한이다.

전남교육감 역시 연간 예산 3조8000억원에 달하는 전남도교육청을 이끌며, 사립학교를 제외한 2만여명 교직원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다. 권한 못지 않게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

도교육감에게는 저출산 및 인구유출로 놓여준 학교 통폐합이 가속화되는 현실을 타개하고 도시와 농촌 학교 간 교육의 질 차이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놓였다.

수험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관심이 뜨겁지만 유권자 전체를 보면, 사실상 감감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정당 간판을 달지 않고 치러지는 선거에서 정치 바람이 불지않고 말 그대로 '그들만의 선거'가 되거나 자칫 '묻지마 투표'로 교육감이 뽑히게 될 공산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우려한 듯 시·도 교육감



장휘국

이정선

정희곤

최영태



고석규

오인성

장석용

후보 6인은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서 하루하루 숨가쁘게 뛰고 있다.

광주시교육감 선거에는 이정선(59·전 광주교대 총장)·정희곤(56·전 광주시의원)·최영태(64·전남대 교수) 등 3명의 예비후보가 출마표를 던졌다.

전남교육감 선거에는 고석규(61·전 목포대총장)·오인성(62·전 나주교육장)·장석용(63·전 전교조 위원장) 등 3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교육감 예비후보자들은 뼈대를 갖춘 공약을 구체화하고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 명함을 돌리고 자신의 대표 공약을 알리는데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시민들 관심이 워낙 적다 보니 일부 예

비후보의 경우 유권자 표심을 사려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교육청 주변에선 나온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육감은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학생들을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자리로, 시·도지사와 비교해도 그 권한과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학부모를 비롯해 전체 유권자가 교육감 후보자로서 이들의 공약과 살아온 이력을 꼼꼼히 살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창립 제34주년
www.kps.co.kr

"글로벌 발전플랜트 솔루션 Provider" 한전KPS!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한전KPS!
사창립 34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으로 세계로 나아갑니다

VISION 2025

한전KPS가 하는 일 · 발전플랜트 설비 진단 및 성능개선 · Retrofit/ROMM · 원전제염해체 · 국내발전설비 정비 · 해외발전설비 운전 및 정비 · 신재생설비 EPC